

신나는 수업! 따뜻한 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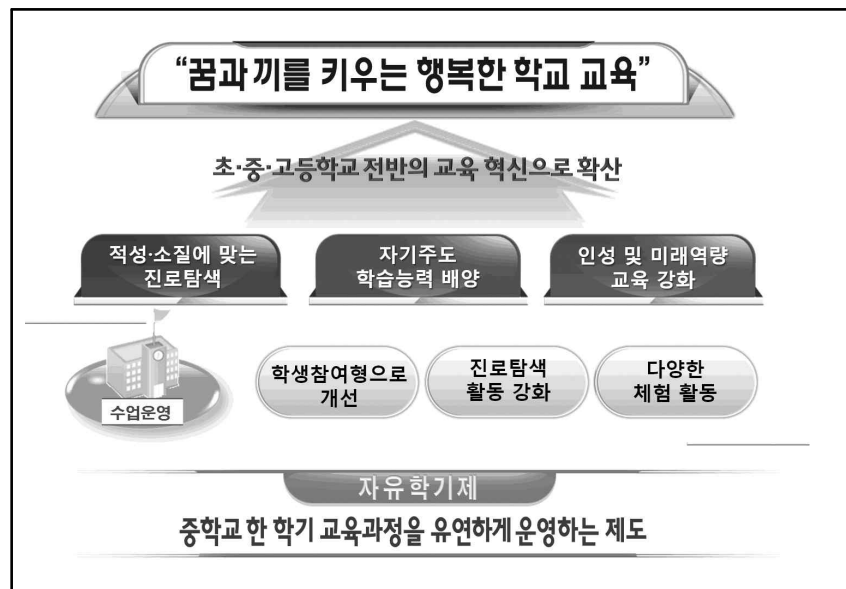
자유학기제의 교육정책 이해

1. 개념

- 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를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 나.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학생 중심 교육을 실천하는 학기이다.

2. 비전과 목표

- 가.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의 한 학기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수업을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의 다양한 체험 활동을 촉진하여 적성·소질에 맞는 진로탐색, 자기주도 학습능력 배양, 인성 및 미래역량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나. 점차 초·중·고등학교 전체로 확산하여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목표를 둔다.



3. 목적

- 가.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지속적인 자기성찰 및 전인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 나. 지식과 경쟁 중심 교육을 자기주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역량(창의성, 인성, 사회성 등) 함양이 가능한 교육으로 전환한다.
- 다. 공교육 변화 및 신뢰회복을 통해 학생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제공한다.

4. 기본 방향

- 가. 자유학기에 집중적인 진로수업 및 체험을 실시하여 초등학교(진로인식) → 중학교(진로탐색) → 고등학교(진로설계)로 이어지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한다.
- 나.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 다. 자유학기제 대상학기는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연구학교의 운영 등을 통해 신중히 결정한다.
- 라. 자유학기에 특정 기간에 집중되어 실시되는 중간·기말시험은 실시하지 않고, 학생의 기초적인 성취 수준 확인 방법 및 기준 등은 학교별로 마련한다.
- 마. 자유학기를 교육과정 운영, 수업방식 등 학교 교육 전반의 변화를 견인하는 계기로 활용한다.

5. 정책 방향

자유학기제가 교육개혁의 출발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과 실천이 요구된다.

가. ‘자유’의 적극적 의미 추구

자유학기제에서 말하는 ‘자유’의 의미는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를 동시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는 ‘지필고사’로부터의 자유라고 할 수 있음에 비해 적극적 의미로는 행복한 학교생활, 학생의 꿈과 끼 찾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배양을 위한 자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지필고사의 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자신들의 꿈과 끼를 찾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자유와 기회를 갖게 됨과 동시에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자유학기제를 통해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보다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을 구안·적용할 수 있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갖추게 된다.

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교육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에 있어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몰입이 가능해야 한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안 중 하나가 자신이 원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적극 참여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몰입하도록 하는 방안 중 하나가 학생 각자의 끼(재능)와 대표 강점을 찾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학기 동안 학생들이 의욕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 학교 수업과 생활에 적극 참여(또는 몰입)하게 함으로써 행복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활동 중심의 학생참여 수업은 물론 진로체험, 동아리, 예술·체육, 학생 선택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활동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다.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 배양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은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학습능력 등으로 학생 자신은 물론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인 창의력 및 혁신능력, 협동능력 및 리더십,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도전정신 등이 학교교육에서 제대로 교육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21세기 사회에서는 집단지성과 창의성이 중요하게 강조되면서 창의력, 협업·대인관계능력, 인성(공감, 도전정신 등)의 중요성은 사회적으로 높게 인식되는 반면, 학교에서 실제로 교육되는 정도는 낮게 인식되어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의 주요 원인이 된다.(최상덕 외, 2013).

따라서 자유학기제가 지적 역량은 물론 공감 능력, 소통 능력, 협동적 문제해결력 등 비인지적 역량과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라.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

자유학기제가 기존 교육정책들과 구분되는 특징 중에 하나는 학교와 교사들의 자율성을 적극 보장함으로써 그들이 학교교육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교사들이 일련의 교육개혁 정책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변화의 대상으로 간주되다보니 그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반면 자유학기제는 도입 초기부터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운영 및 평가에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조하여 교사가 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 시행 시 교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함양을 통해 교사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대상의 연수와 컨설팅은 물론 학교 차원의 교과연구회 등과 같이 교사들이 자발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들이 교육과정 재구성, 새로운 수업 방법 및 평가 방법을 개발하느라 증가한 업무 부담을 다소라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 학교 및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모델 추구

학교는 학교와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성공 모델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의 비전과 지역사회의 여건을 살린 다양한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지역사회가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바. 학부모의 참여를 촉진

자유학기제의 시행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자유학기제 박람회와 성과보고회 등은 자유학기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다. 따라서 학교 차원에서도 학부모 연수, 수업 공개, 지역사회 체험기관과의 MOU 활동 등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3년 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만큼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의 수업 개선 및 체험 활동 실천 사례를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사. 초·중·고교 전반의 교육개혁으로 확산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운영한 학교들은 자유학기를 경험한 학생들이 다른 학기에도 자유학기의 긍정적 경험을 살리며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를 대비해 자유학기제가 중학교의 다른 학기는 물론 초등학교, 고등학교와 연계되어 확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과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6. 교육과정 편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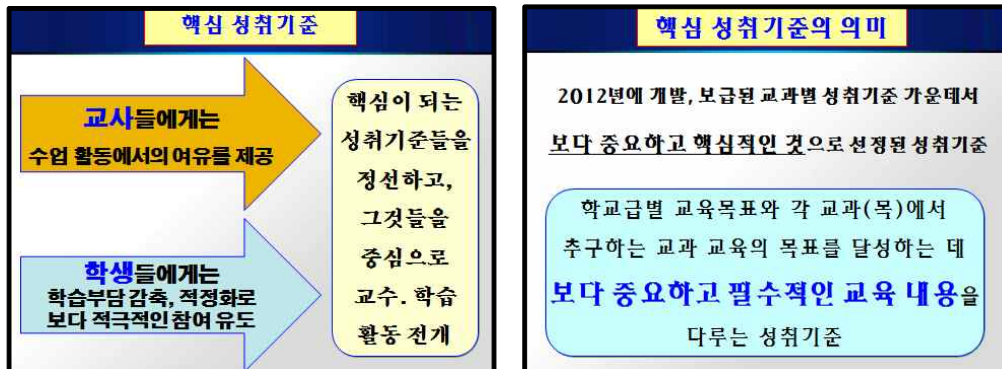
가. 학생의 참여와 활동 중심으로 교수·학습 방법 다양화

- 1) 국어·영어·수학은 핵심 성취기준 기반의 수업 효율화로 암기식 수업을 최소화하고 토론, 문제해결, 의사소통 등 학생 중심 수업을 활성화한다.
- 2) 사회·역사·도덕·과학·기술가정 등은 실험·실습·체험학습 등으로 강화하고,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개인 및 모둠별 프로젝트 학습을 확대한다.
- 3) 블록(Block)타임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교과 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간, 학습주제 간, 학급 간 융합·연계 수업을 실시한다.
- 4) 두 명 이상의 교원이 한 교실에서 함께 가르치는 코티칭(Co-Teaching)과 학생 간 역할분담 및 의사교환 등을 통해 학습하는 코러닝(Co-Learning)을 활용하여 능동적 협업학습을 실시한다.
- 5) 명사·전문가 특강, 독서 등 간접 체험학습 방식을 직접 체험학습 방식과 연계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

나.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1) 진로탐색 활동, 선택형 프로그램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욱 탄력 있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행 수업시수 증감 비율의 확대·운영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한다.
- 2)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을 실시하지 않는 기간, 학교재량휴업일 중 여유 시간 등을 ‘체험·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분산하여 활용한다.
- 3)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별 성취기준 중에서 학생이 수업을 통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핵심 성취기준을 선별하여 핵심 성취기준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재구성하여 교과별 수업에 활용한다.





♣ 핵심 성취기준이란?

- ▶ 2012년에 개발·보급된 교과별 성취기준 가운데서 보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으로 추출된 성취기준을 의미
- ▶ 학교급별 교육 목표와 각 교과(목)에서 추구하는 교과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보다 중요하고 필수적인 교육 내용을 다룸으로써 여타의 성취기준을 달성하는 기초가 되는 성취 기준(여타의 성취기준을 삭제하거나 간과, 무시하는 것은 아님)
- ▶ 핵심 성취기준을 정선해야 하는데 이것은 교사의 교수 활동과 학생의 학습 활동에 일종의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
- ▶ 교과 단원의 중요성에 따라 수업내용을 선별하고 양을 조정하여 수업의 속도와 세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함.
- ▶ 따라서 핵심 성취기준 중심으로 교과서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교사 간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교과협의회를 활성화시켜 교사 전문성을 신장해야 함.

다. 학생의 체계적인 진로탐색 기회 확대

진로학습 ⇒ 진로상담·검사 ⇒ 진로체험 ⇒ 진로탐색 포트폴리오 구성

- 1) (진로학습) 학생이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학습 토대를 마련한다.
 - 학생의 진로개발 역량 지원을 위해 스마트 콘텐츠 등을 활용하는 종합 진로교육 프로그램인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SCEP : School Career Education Program)’을 적극 활용한다.
 - 학생의 진로역량 고양을 위해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기본교과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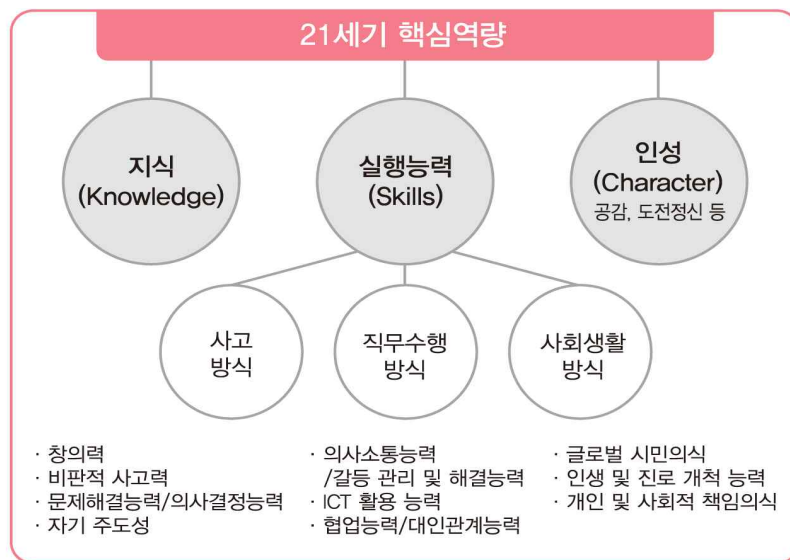
- 이미 개발된 ‘학교 진로교육 성취기준 및 성취지표’를 교육 내용에 반영한다.
 - 진로와 연관된 다양한 ‘교과통합 진로교육과정’ 운영을 활성화한다.
- 2) (진로상담·검사) 학생의 개인별 특성과 역량에 맞는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진로 상담·검사 체제를 구축한다.
 - 커리어넷(www.career.go.kr) 시스템을 통해 진로심리검사 무료 제공, 진로 상담 모바일 앱(4종) 운영 등 학생 진로상담 서비스를 강화한다.
 - 3) (진로체험)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진로학습 및 상담에서 모색한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확인하는 기회를 활성화한다.
 -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제공 또는 기관에서 ‘전일제 진로체험’, ‘진로캠프’ 등을 실시한다.
 - 지역 내 교육기관 등과 연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학부모·지역사회 직업인의 멘토 활용으로 학생의 진로·직업관 형성을 증진한다.
 -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또는 경험자 등을 활용한 초청강의 및 특강 활성화로 학생들의 간접체험을 지원한다.
 - 학교재량휴업일 등 여유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여 학생이 스스로 국내의 다양한 기관들에서 진로체험 계획을 세우고 학교장은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자기주도 진로체험’ (기간은 학교장이 결정)을 실시한다.
 - 4) (진로탐색 포트폴리오 구성) 자유학기를 중심으로 초·중·고등학교에 걸친 학생의 진로탐색 활동 전반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제공한다.
 - 현행 학생부의 ‘진로희망사항’란 등에 학생이 희망하는 직업뿐 아니라 희망이유 및 비전 등을 기술하고, 그 내용이 학교 급별로 연계되도록 하여 교사·학부모·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진로탐색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검토한다.
 - 에듀팟(Edupot)을 활용하여 학생의 진로학습·상담·체험 기록을 누적 관리하여 학생의 진로선택을 위한 포트폴리오로 활용한다.

라.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오는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강화

- 1) 학생 수요 조사 →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도출 → 학생별 선호에 따른 선택 → 프로그램 운영
- 2) 학생들의 다양한 청소년단체 참여 및 활동을 권장한다.
- 3) (동아리 활성화) 학생의 희망과 선호에 따른 다양한 동아리 개설 및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 간 동아리 연계 활동을 강화한다.
 - 학교 밖 인프라 발굴 및 확보를 확대하여 방과 후, 토요일 등을 활용한 동아리 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 4) (선택형 프로그램) 흥미, 관심사 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선택형 프로그램 개발·제공으로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한다.
- 선택형 프로그램은 학교별 동아리에서 중·장기에 걸친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지속적인 흥미 유발 및 교육 효과를 증대한다.
 - 학생들의 관심 분야, 선호 프로그램, 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피드백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한다.
 - 현재 운영 중인 창·체 중 이론 전달, 간접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체험·활동형 내용으로 대체한다.
- 5) (예술·체육 교육) 예체능 교육을 다양화·내실화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교육을 실시한다.
- 학생의 희망에 따라 예술교육선도학교 등에서 이미 개발된 ‘예술(음악·미술) - 교과 융합 프로그램’활성화로 입체적인 학습을 지원한다.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한 정규교과 및 학교 자유학기 활동(자율과정) 등에 예술 강사 지원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추진한다.
 - 스포츠클럽 리그대회 활성화 및 운영매뉴얼 마련, 스포츠클럽을 토요스포츠클럽데이 및 방과 후 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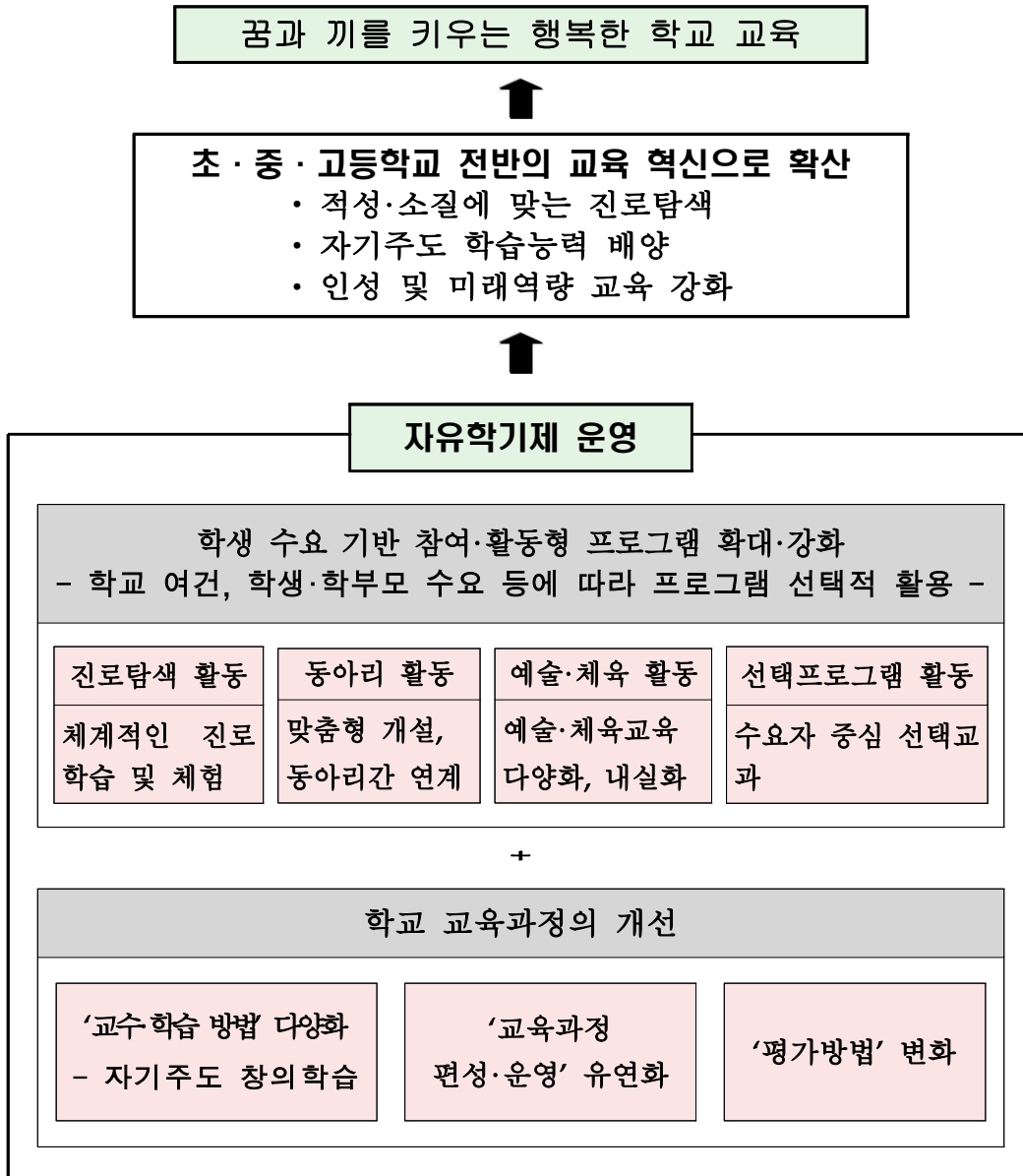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competence)’의 개념은 지식(knowledge), 실행 능력(skill), 인성(character)을 포함한 광의의 의미이며,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21세기 핵심역량의 구성 요소

출처: 최상덕 외(2013).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 한국교육개발원

7. 자유학기제 체계도



8. 기대 효과

- 가. 적성에 맞는 자기개발 및 인성 함양에 기여할 것이다.
- 나. 만족감 높은 행복한 학교생활을 제공할 것이다.
- 다. 공교육 신뢰회복 및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다.